

단물 빨던 ‘친박’은 어디로 갔나?

朝鮮칼럼 The Column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은 식물이 되어 가고 있다. 노무현 사람인 김병준을 총리로 그리고 김대중 사람인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이 반대해 국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막상 야당이 요구한 거국 중립내각을 수용해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는 실권을 행사한다 해도 야당은 입장을 바꾸어 반대할 뿐이다.

문제는 ‘물타기’ 혹은 ‘코스프레’ 인사라는 정치적 반대의 벽에 튕겨나가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 낼 인물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병준·한광옥 두 사람은 이미 노무현과 김대중으로부터 보따리 짚 사람들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총리 지명자의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에서부터 “국정교과서 반대” 혹은 “사드 배치 반대”가 소신인 사실까지도 보따리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항복인가? 이래도 저래도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말 없이 야당이 합의해 줄 인물이라면 아마도 사사건건 대통령에 반대하며 막말을 쏟아낸 정청래 전 의원 정도겠다. 그래서 전직작전권 환수 연기도 취소하고, 통진당 해산도 무효로 만들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 지위도 다시 원상 복귀시키자고? 핵무기가 노리는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자고?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여소야대 국회의 다수당인 두 야당도 이제는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으로선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보따리가 없다. 헌정 중단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 모든 것

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려 했던 ‘문화 융성’은 물론이고, 두 재단에 돈을 낸 재계가 관심은 기울이던 ‘창조경제’도 물 건너갔다. 여대야소에서도 못했던 노동 개혁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로 이룰 수는 더욱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다수가 원하던 개헌마저도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제는 스스로 검찰은 물론 특검 조사도 받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머리 숙였다.

셀물처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은커녕 배신의 스펀트럼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팔아 국회의 원, 장관, 수석 등 한 자리씩 꿇치고 단물 빨던 인물들의 배신이 비록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의 배신은 더욱 쫄뼛거리다. 당선인 대변인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쌓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무수석 하는 11개월 동안 대통령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발언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박’의 대명사인 서청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을 누님이라 부르던 윤상현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지분으로 장관도 하고 지난 4월 선거까지만 해도 ‘친박’ 공천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최경환 의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구·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팔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때부터 국민은 이미 쪽박이 새

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새누리당이 ‘친박’ 대 ‘비박’으로 반 토막 나는 일이 ‘친박’ 입장에서 감지덕지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친박’은 물안개 사라지듯 없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처럼 식물이 된 대통령을 향해 너도나도 물고 뜯고 할 쥘 것이 분명하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당직을 내려놓은 알팍한 모습에서 이미 새누리당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한다.

노무현 정부 말년에 ‘친노’가 폐족(廢族)이 된 시절이 있었다.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이 유행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까닭은 물론이고, 학생이 성적을 잘못 받아도, 총각이 장가를 못 가도,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도 무엇이든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란 냉소적 유머가 판을 쳤다. 지금 꼭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게 최순실 때문이라고.” 아마도 ‘친박’의 폐족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온 반기문의 역할로 정점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폐족이 된 ‘친박’의 구세주가 된다고? 꿈도 야무지다. 우선 ‘친박’이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 총장이 그리 간다는 보장도 없다. 반 총장 또한 “대통령 지시 따라 모금했다”는 인종범 수석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리란 보장은 더더욱 없다. 배신의 지옥도, 끝판왕은 과연 누구일까? 최순실 팔아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인간들이 나라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년에 유행한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게 최순실 때문”
최순실 팔아 살아보겠다는
배신의 끝판왕들이
나라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어